

기억 속에서 불러낸 탄허 스님의 생생한 모습



방산굴의 무영수
-상·하
월정사·김광식 지음
오대산 월정사 펴냄
2만5천원



답해 주는 방식이었지요.”

탄허 스님은 오대산에서 입산하여 수행하고,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한암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이어 받았다. 그리고 오대산에서 수도원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는 등 스님의 활동은 오대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오대산 불교, 더 나아가 한국불교에 대해서는 탄허 스님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책에는 탄허 스님이 수행한 결사적(結社的)인 내용도 다수 나온다. 탄허 스님의 수행, 유훈설을 망라했던 학문, 교육의 중심에는 (신화엄경론)의 번

“불경 보고나니 ‘장자’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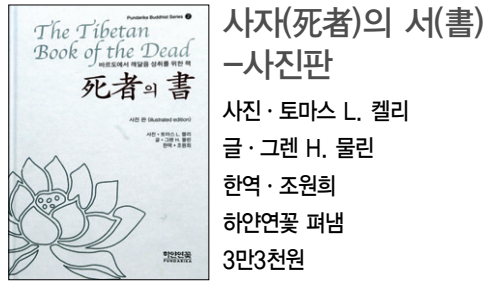
스님 총체적으로 다시 조명
결사적인 차원도 평가받아

역, 출간이라는 대작불사가 있다. 그리고 오대산 수도원, 영은사 수도원의 개설 및 운영이 있다. 이러한 탄허 스님의 대작불사, 수도원 운영은 그 자체가 결사였다.

수십 년간 지속된 스님의 그 행보는 가시밭길이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분야를 개척한 고독한 행보였다. 책은 “이제 스님의 역사는 한국불교의 역사로서 결사적인 차원에서 접근, 해석, 평가해야 할 것이다.”고 말한다.

대담자이자 저자인 김광식 교수는 증언집 작업을 위해 탄허 스님과 인연이 있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을 만나면서 ‘탄허’란 이름은 ‘큰스님’이란 인간적인 면모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책의 증언들은 스님에 대한 재평가, 재조명을 기할 수 있는 증언들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대작불사를 이루어낸 탄허 스님은 인간 승리의 표본이다. 이러한 스님의 업적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화시켰고 스님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쉬지 않았던 진정한 큰스님, 탄허 스님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탄허 스님께서 탄생하신지 100년,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후세의 등불이 되어 국가 미래의 꿈, 수행자의 좌표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이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티베트의 고전으로 보는 삶·죽음·해탈·환생



사자(死者)의 서(書)
-사진판
사진·토마스 L. 켈리
글·그렌 H. 몰린
한역·조원희
하안연꽃 펴냄
3만3천원

1927년 옥스퍼드대학 출판부는 <바르도 토돌(Bardo thodol)> 또는 <듣기에 의한 사후 세계에서 깨달음>으로 알려진 티베트 고전의 번역본을 처음으로 출판했다. 이후로 이 심오한 작품은 여러 형태로 접근을 시도한 책들이 영어로 출간됐다. 책은 이 고전을 재구성한 것이다. <바르도 토돌>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만, 이와 관련된 눈으로 보는 세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책은 사진가 톰 켈리의 사진들을 기반으로 한 ‘사진판’ 프로젝트다.

티베트 경전 <사자의 서-Tibetan Book of the Dead>로 알려진 <바르도 토돌>은 8세기 경 인도의 탄트라 불교를 처음으로 티베트에 전래시킨 티베트 불교의 승려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가 썼다는 108개의 경전 중 하나로서 사후 세계에 관한 경전이다.

바르도란 용어 자체는 두 경험 사이의 간극이나 공간이란 의미에서 단순히 ‘사이’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때는 죽음과 환생 사이의 간극 또는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티베트의 문헌에서



두 명의 라마가 화정의식에서 기도예식을 하고 있다. 1985년 네팔 출라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바르도 영상’과 ‘바르도 길’과 같은 말은 사망 후에서 환생까지의 시기에 경험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토돌이란 ‘듣는 것을 통한 영원한 해탈’이라는 뜻으로, 죽음의 순간에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삶과 죽음의 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르도 토돌이라고 한다.

“요기가 의식 전이를 시도하길 원한다면, 그는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표시들을 관찰해야만 하며, 거울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중략> 그리고 나서 죽음의 마지막 단계의 표시들이 일어날 때, 해방의 포와 방법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전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이 (바르도 토돌)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와 기법이 성공하지 못하면, 의식집행자는 망자의 몸에 가까이 있어서 이 (바르도 토돌)을 독송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고 바르도에서 윤회와 해탈하는 과정에 필요한 의식과 바르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7단계로 설명한다. 이 7단계 동안에 여러 다양한 모습들의 붓다들이 나타나 해탈과 깨달음의 길로 이끈다고 한다. 각 단계마다 해탈을 이룰 기회

가 제공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단계(7일) 중 어느 한 단계에서 해탈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카르마, 번뇌, 무명의힘은 강합니다. 몇몇 이들은 지시사항을 분명하게 읽어줘도 자신들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한 영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해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들은 7일간의 주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탈의 단계가 끝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여 부적절한 환생 피하기’, ‘부적절한 자궁에 이르는 문을 닫는 방법’, ‘적절한 환생 장소 찾아내기’, ‘환생하는 두 가지 방법’ 등 환생의 단계를 소개한다.

“바르도를 건너뛰고 붓다의 경지에 바로 이르게 된 이들 외에는 모두 바르도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최선은 이곳에서 해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바르도 경험의 수준에 따라 해탈을 성취할 것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후의 비밀을 담은 티베트의 고전이다. **박재완 기자 wanhillo@hyunbul.com**

힘든 세상을 살게 해주는 스님들의 깊은 생각들

스님의 생각

정법안 지음 | 부글북스 펴냄 | 1만3천원



“천당은 못 오게 막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마음속에 번뇌를 잔뜩 지니고 있어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못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옥도 오히려 유혹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다. 왜 그럴까? 오욕 덩어리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책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한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등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 어차피 온 곳을 모르고 가는 것을 모르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의문

과 물음 앞에 직면하고 있다.

책은 효봉 스님, 청담 스님, 경봉 스님, 성철 스님, 서옹 스님 등 선지식들의 법문과 일화를 소개한다. 저자는 성찰을 위해 한 순간도 경책의 죽비를 놓지 않고, 오직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스님들의 등불 같은 이야기와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한다.

영하의 차가운 겨울에도 졸음을 이기기 위해 찬 물이 든 항아리 속에 몸을 담그고 수행한 춘선스님의 일화라든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찾아온 신도에게 오히려 법문을 통해 부부란 서로가 진정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경봉 스님의 일화라든지, 죽을 고생을 하고 삼천 배를 한 신도에게 성철 스님이 던지는 춘철살인의 예화 등은 ‘삶’에 매달려 있는 모두에게 실천의 실마리를 던진다.

저자는 “저는 어린 시절, 불교에 입문하여 그 동안 이 시대의 큰스님들을 많이 친견해 왔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못 살 삶의 따뜻한 교훈들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지난날은 내게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면서 책에 실린 큰스님들의 말씀과 일화들은 분명 모두에게 삶의 지평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0 ~ 2/26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대문화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뛰는 마음 빠른 마음(개정증보판)	김재용	영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애펜터
5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출판
6	지금 당장	도법	다산초당
7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김영사
8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랴	지유 외	불광출판사
9	공부하다 죽어라	정찬주	열림원
10	가슴이 부르는 만남	백택주	불광출판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0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3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 **달라이 라마 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이 시대 인류가 읽어야 할 양서!**

*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 영혼체 문화론 (158쪽/10,000원) -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 관음태고 (227쪽/10,000원) - 영혼체 태고법인 관음태고의 이론과 실제
-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제 (33쪽/무료배포) - 현지사 천도제 안내

출판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